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2

2000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에스더
· 욥기
구역예배 · 디모데후서
남성구역예배 · 에베소서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장로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2

2000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에스더
· 욥기
구역예배 · 디모데 후서
남성구역예배 · 에베소서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 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낮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이곳에 오시기까지, 이 땅엔 몇 천년을 기다렸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때가 차매, 그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조용히 내려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고 낮은 곳에서 순박한 목자와 낮은 이방인들이 하늘의 참된 평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2:14)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이곳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더 세월이 흘러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도적같이 오시는 날, 뜨거운 햇볕 아래서 노동으로 시달린 몸이 따뜻한 온돌방에 누이듯, 우리네 무겁고 고달픈 생애가 그의 미소로 벗겨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낮고 낮은 곳에서 눈물 흘리며 부리는 씨앗이 자라나 하늘 아버지께 드릴 향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계7:17).

2000년 12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욥기서 서론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고 하기 전에, 욥은 이 세상의 허무함과 불의함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누가 천상(天上)에서 벌어지는 마귀의 음모를 헤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결정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의 판단을 측량할 수 있겠는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11:33).

그래서 인생은 연약하고 깨어질 질그릇이며, 한없이 미련하고 가엾기만 한 것 아닌가! 인간의 지혜는 덧없고 티끌만도 못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그가 베푸시는 은혜뿐인 것을!

하룻밤 사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상실한 욥기의 시작은 네명의 친구들과의 결코 끝나지 않을 변론으로 이어져간다. 변영은 의의 표징이며, 불행은 죄의 대가라고 확신하는 친구들의 지혜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욥의 고난을 더 큰 혼동 속으로 빠뜨릴 뿐이다. 결국 욥의 고난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해결되어진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과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전개되고, 욥은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렇다! 처음부터 욥의 고난에 대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수많은 변론은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생에 대한 논지뿐이다.

주요내용

1장-3장 : 시험과 고통의 시작

욥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그리고 찢어지는 가슴

4장-7장 : 엘리바스와 욥의 첫 번째 변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너는 죄를 범했다. 나는 결백하니, 하나님이어 나를 놓으소서

8장-10장 : 빌닷과 욥의 첫 번째 변론

오직 죄인만이 고난을 받는다

죄인도 결백한 자도 고난받으며, 나는 죽는 것이 더 낫다

11장-14장 : 소발과 욥의 첫 번째 변론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너는 범죄했다

하나님은 크시며, 너의 의견은 의미가 없고, 나는 슬프고 괴롭다

15장-17장 : 엘리바스와 욥의 두 번째 변론

너는 위선자다

하나님은 가혹하시며 모든 것이 소망이 없다

18장-19장 : 빌닷과 욥의 두 번째 변론

너는 잘못했으며, 악한 자는 함정에 빠지는 법이다

너는 보잘 것 없으며, 내 구속자는 살아계시다

20장-21장 : 소발과 욥의 두 번째 변론

너의 주장은 답답하며, 내 주장은 너를 괴롭게 한다

네 귀를 열고, 네 눈을 열며, 네 마음을 열어라

22장-24장 : 엘리바스와 욥의 세 번째 변론

너는 악한 사람이다

나의 심판자와 정의가 어디 있는가?

25장-28장 : 빌닷과 욥의 세 번째 변론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며, 공의로우시며, 지혜로우시다

29장-31장 : 소발과 욥의 세 번째 변론

소발의 침묵

욥의 과거와 현재의 회상, 고난과 욥의 경건

32장-37장 : 욥에 대한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

너의 고난은 교만때문이며,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주관하신다

38장-39장 : 욥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이 땅의 모든 이치를 네가 알며, 동물들의 세계를 모두 아느냐?

40장-42장 : 욥의 답변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은 암흑의 밤을, 광명한 낮이 되게끔 하십니다. 하만은 본서에
서 네 번이나 유다인의 대적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3:10; 8:1;
9:10; 9:4).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곁에 계시어, 이 하만을 벌하시고, 유다
인 **모르드개**로 하여금 하만 대신으로 재상(宰相)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이 세상 영광을 자랑하던 하만의 생명과 부귀는 하루 사이에 사라져 버
렸습니다. 자기를 만족케 하기 위해, 자기의 힘과 재능에 의해, 그러한
지위를 획득하여 얻은 신자는, 하나님을 안중에 둘 수가 없습니다.

선민(選民) 학살 계획의 장본인 하만은 처형되었으나 에스더는 그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3절 하반)와 온유
한 태도(3절 끝) 그리고 신중한 처사(5절 하반)는 실로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때의 에스더의 태도에는 폭군이라도 감
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집을 얻게 된 일이라든
가, 모르드개에게 내려진 은총의 일 등으로써 만족할 수 없었고, 자기
동포를 위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는
그치지를 앉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심정으로 왕의 앞에 나아
갔는데, 다행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홍을 내어, 그녀를 공홍히 보
고, 그 요구를 받아드려 주었습니다. 악은 깨끗이 소탕되어야 합니다.
죄악은 근절되지 않을 경우 후환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모르드개는 소
집된 왕의 서기관들을 시켜서 ‘조서’를 작성케 하고 왕의 명의로 된 조
서를 빨리 달리는 자들에게 부쳐 전하게 하였습니다. 깨끗한 승리를 향
한 진행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악의 소탕은 중보기도로 전진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정의가 굳게 서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
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모르드개로 말미암아 새로이 작성된 조서의 내용은, 유다 민족이 공격을 받을 경우 단결하여 방위할 것과 또한 저항할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취소될 수 없으므로(8절 하반) 이미 하만의 음모에 찬동한 자들이 유다 민족을 해할 가능성은 농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유다 민족에게 자체방위의 전투를 허락한 것입니다.

아달월 십 삼일. 이 날은 바로 하만이 유다 민족을 학살하려던 그날 인데(3:13), 이제 일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만의 무리가 죽임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게 된 것은 당연한데(16-17), 수산 도성의 백성들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15), 유다인 되는 자, 즉 귀화(歸化)하는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17). 한 평민 모르드개의 신앙과 용기가, 한 번은 위기에 직면했었으나, 그것이 전교회(전민족)을 드디어 구원하고, 오히려 이방인까지도 감화하여, 교회에 나오게 하는 자(교인되는 자)를 많이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딤후2:3,4)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엡6:10-18). 여기 나오는(11절) 피의 보복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좇는 그리스도인을 당황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으며(출23:22)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대적하여 싸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범죄자들과 그들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자체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 악을 공격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청결케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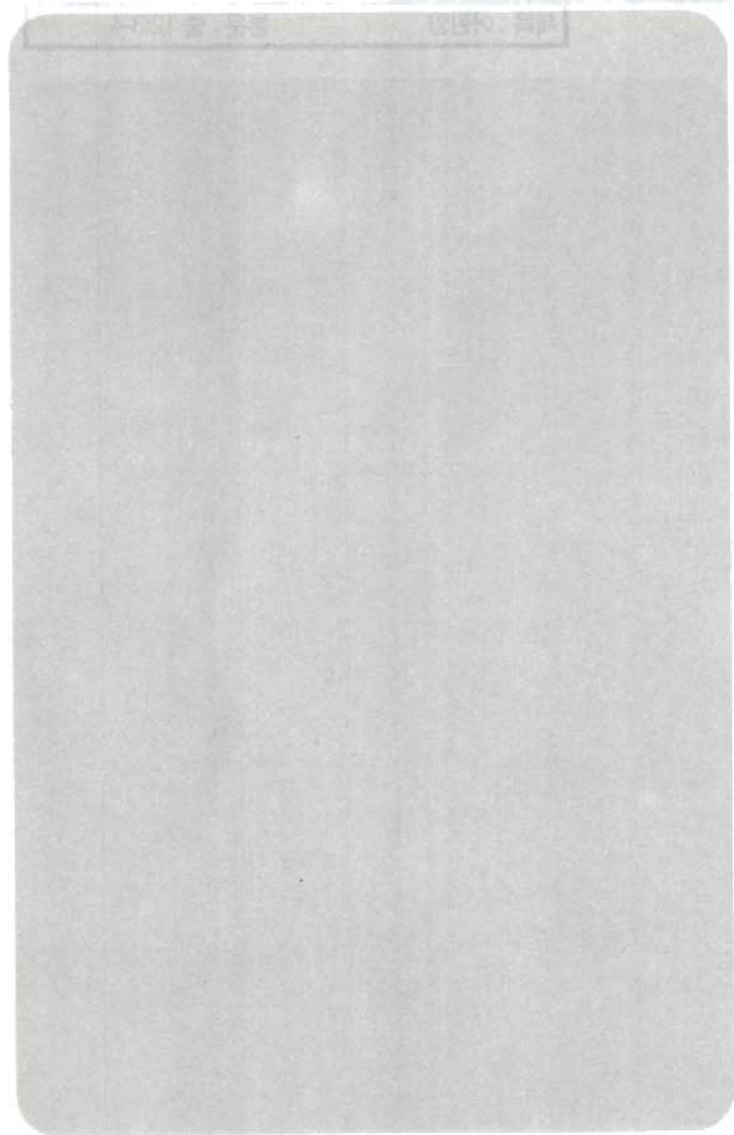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백성을 모해(謀害)하려던 자가 도리어 수욕을 당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이 세력을 잡았지만 그들은 전혀 공격의 의사와 싸움의욕이 없는 대적들을 찾아 다니며 살육한 것이 아니라, 공격해 오는 대적들을 상대로 정당 방어 위주의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파사의 수도 '수산'에서 유다인들에게 죽임이 된 원수들의 수효는 '오백 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하만의 열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하수어로 왕은 많은 사람들이 수산 도성에서 유다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보고를 듣고도 에스더의 의견을 또 물었습니다. 그는 에스더의 마음이 만족할 때까지 유다인의 원수들을 소탕하도록 허락할 방침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움직여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간섭으로 된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 에스더의 청원은 잔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살육의 날을 하루 더 연장하고자 한 에스더의 소청은 얼핏보기에 피에 굶주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하루에 미처 처치하지 못한 대적들을 남겨두게 되면 그들은 세력을 규합하여 또 다시 유대인들에게 암적인 존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화근을 뿌리째 뽑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삼상 15:18).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에스더의 청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까지 한계를 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하셨는데 하만의 무리가 그들을 더 박해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박해자들을 벌하시는 데 있어서 에스더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받는 것 같으나 완전히 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증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여기서는 부림절을 제정한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부림절을 지키는 목적은 유다 민족이 그들을 전멸하려던 하만의 꾀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기 위함이며 부림절을 대대토록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긴 유다인은 이제 쉬며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유다인의 승리의 기쁨을 축하하는 날로 '두날' (14일, 15일)을 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간섭으로만 성립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의 축하는 하나님을 믿음과 감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기쁨은 개인주의에 속한 것이 아니며 이기주의를 장려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을 도와주는 것으로써 열매를 맺습니다. 기쁨으로 남들을 돕는자는 자기의 기쁨도 증가시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서로 돌아보며 궁핍한 것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기쁨을 없애버리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배양시킵니다. 이렇듯,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원수(죄악)를 정복하고 이겨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 승리의 기쁨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 하였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5:4)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축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대적의 손에서부터 구원받아 존귀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본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섭리 중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정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지배하시고, 사람의 분노로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변화시키십니다(시76:10). 가장 큰 사건이나, 가장 작은 사건이나, 모두가 그의 관리하에 있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과 그 백성의 대적들의 멸망을 촉진하기 위해 지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사사로운 원한을 가지게 된 후(3:6)에, 일층 심한 사단의 독심(毒心)이 생겨,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대왕 아하수에로는, 바사와 바벨론, 팔레스틴에 사는 유대인들도 생살(生殺)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사단은 크신 구세주가 다윗의 집에서 일어나, 자기 능력을 멸할 것을 알아, 어떻게 해서라도, 이를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단은 어떤 때는 창을 던짐으로써 젊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삼상18:9-11). 어떤 시대에 있어서도, 사단은 언제나 이런 식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창을 벗어나게 하셨고, 사단의 독심은, 헤롯왕을 교사하여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구원과 원수들의 멸망을 지휘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역사속에서 하나님의 정치가 진행됨을 믿게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욥 기는 욥이라는 한 경건한 인물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선하시며 자신의 의로우신 뜻에 따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욥의 대해 소개하고 있는 1-5절과 욥의 시험을 받게되는 배경을 보여 주는 천상회의 장면을 언급한 5-12절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이며,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이며, 가족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자입니다. 뒤이어 욥에 대해 고난을 알리는 천상의 회의가 열리면서 순전하고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욥에게 닥친 갑작스런 고난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욥을 고난에 빠뜨려 타락시키려는 사단의 악한 의도(9-11절)와 욥의 신앙을 보다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대비되어 나타나는 가운데 그결과 욥의 시험당함의 결정됩니다(12절).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사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건한 자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악한 꾀계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단의 꾀계조차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섭리하에서 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문은 인간과 자연을 통한 재난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과 종들을 모두 잃게 되는 욥의 첫 번째 시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허락속에서 사단은 본격적으로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수하에 있던 사자가 전해준 소식은 욥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도 남았습니다. 즉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13-15절)

욥의 한 종이 불행한 재난을 알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을 살랐다는 보고를 다른 종을 통하여 받습니다(16절). 계속해서 다른 종이 와서는 갈대아 사람이 와서 종을 죽이고 약대를 가지고 갔고(17절), 다른 종은 대풍이 불어와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비보를 전합니다(18-19절).

이방인의 침략행위로 인하여 재산의 손실을 입고 종들이 죽은 것은 사실 그렇게 큰 고통은 아닙니다. 그런데 4차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목살하는 큰 재난은 욥이 고통의 가장 극도에 다다르게 하려는 사단의 의도가 숨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나님을 증오하도록 만들려는 사단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욥이 참고 있었던 입을 열어 첫 번째 반응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 자신의 극심한 비탄을 보여주며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는 입술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20-22절).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환란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치 않게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옴에 대한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사단은 다시 하나님앞에 나타나 두 번째 시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옴을 지극히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참소하였습니다(1-4절). 옴이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한 것은 진정한 믿음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사단은 몰아 부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옴을 하나님앞에 참소할 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라는 표현을 쓴 것에도 잘 나타납니다(5절). 이 말은 당시 물문고 환하던 상인들이 사용하던 용어인데, 한쪽 것을 얻기 위하여 그만한 값어치의 다른 것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몸을 다치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며 사단은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생명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6절).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은 옴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발하는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7-8절) 그에게는 재난위에 재난이 또 임한 것이다. 질병이 진전됨에 따라서 극심한 가려움증이 생겨나며 점차 고름이 나오는 병인데, 이 질병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한 재앙중에 하나였습니다(출 9:8-11). 극심한 육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아내까지 동원하여 사단은 옴의 아내를 격동시켜 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공평을 원망하여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유혹하였습니다(9절). 옴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고 오히려 아내를 꾸짖었습니다(10절). 옴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는 사단의 예측은 이번에도 빗나갔으며 옴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다시 한번 사실로 판명되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의 유혹도 이기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문에서부터는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세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하여 여호와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변론에 참가한 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욥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으로 보아 매우 절친한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은 데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11절).

욥을 본 친구들은 일제히 비통한 소리를 지르며 울고 각각 자기의 겹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렸습니다(12절). 이와 같은 그들의 행동을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최고의 슬픔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었습니다(참조 수7:6; 삼상4:12). 그들은 욥과 같이 큰 재산을 소유한 당대의 지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에 따라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분명 진실한 우정의 발로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칠일을 욥과 함께 머물며 그의 고난에 대해 슬퍼하는 인간적인 미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13절).

욥을 찾아온 세 친구도 물론 인간적인 위로가 되었지만, 결국 참된 위로자가 되진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후의 욥과 거듭되는 변론에서 보듯이 일방적으로 죄인으로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단계로 나아감으로써 고난받는 욥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욥의 고통을 더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기도 제목 / 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자신을 찾아온 세 친구와 마주앉은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출생 직후에 사망하지 못한 사실까지 한탄합니다. 앞에서 닥쳐온 시련을 통하여 지체롭게 감당하던 욥이 본문에서는 스스로 비통해 하며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포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끝없는 투쟁과정입니다.

먼저 전반부인 1-10절은 욥의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부분인데,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상황 속에 대한 불평보다는 그러한 고난의 비참한 속에 처해 있는 자신의 삶과 존재를 향해 저주와 탄식을 발하고 있습니다. 11-19절은 욥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죽음을 동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서, 욥은 자신이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한탄하며 (11-12절) 또한 죽음이후의 평안한 상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13-19절). 그리고 후반부인 20-26절은 이미 태어났으며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죽기를 갈망하는 욥의 애처로운 탄식과,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게 죽음을 부여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에 대해 이렇듯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죽기를 바라는 욥의 탄식 속에서 우리는 그가 당한 고난의 상황이 실로 심각한 것이었음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됨에 따라 삶의 방향성과 소망을 잃고 혼란과 절망에 빠져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의로운 행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기도제목 / 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욥과 그 세 친구 및 참관자 엘리후 사이에서 욥이 당한 고난의 규명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진 사실과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태어남과 살아있음을 저주하고 죽기를 갈구하는 욥의 탄식을 듣고 엘리바스가 변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환상중에 나타난 영의 말을 자신의 견해를 보증하는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16절). 인생의 불의함과 연약함, 육체적, 정신적 한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탄식하는 욥을 일깨우고 각성하기 위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론은 욥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욥의 상황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에게 아무런 위로나 해결점을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에게는 고난을 당하는 욥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욥이 잘못을 범한 결과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시 욥에게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낙심된 마음에 용기를 주는 위로와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므로 인간을 완전하게 위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 위로자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주시는 평안을 주옵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엘리바스는 고난이 인간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욥 자신의 범죄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욥에게 보다 적극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한 직접적인 회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은 연단을 위함이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이 회개하여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다시 찾아올 축복과 평화를 안전한 가옥, 풍부한 가축의 무리, 행복하고 번영하는 가족의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17절)라는 말씀에 욥의 경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엘리바스의 권고의 목적은 욥의 회개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에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러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의 성격과 원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욥에게는 그를 조소하는 소리로 들렸을 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위로자는 고통 당하는 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 권면해야 합니다 (요4:7-26).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게 해주옵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욥의 범죄를 고발하고 참회를 촉구했던(5장) 엘리바스의 자기 주장이 끝이 나자 이제 욥의 답변이 소개됩니다. 욥은 고통스런 현실 속에서 친구들의 위로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게 되자 분을 못 이겨 자신을 변호하며(1-13절), 자신은 절대 의롭고 진실한 존재임을 항변하였습니다(14-30절).

욥은 엘리바스가 의심하며 추궁한 바 있는 자신의 도덕적 순결성에 대해 단호히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24-30절). 그런데 욥은 자신의 순결성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비난하는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순결하고 깨끗하였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신앙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교만의 죄에 이르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만한 참 신앙인은 주변 형제들과 비교하여 의와 도덕성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인가?'를 더욱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악의 늪 속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던 불쌍한 자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따뜻한 위로자로 찾아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들어 하는 이웃에게 참 위로자로 다가가기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의 참 위로자는 예수그리스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이웃을 위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자신을 정죄하고 참회를 촉구하는 엘리마스의 충고를 받고 분한 심정으로 자기 의를 주장했었던(6장) 욥은 본문에서 인생의 허망함(1-10절)과 연약한 인간을 향해 내리시는 징계로 인한 고통과 비탄에 찬 질문(11-21절)을 절규에 가까운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토록 심하게 다루시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곧 신앙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고 호소했으며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에게 찾아올 죽음을 고요히 당하고자 했습니다(21절). 이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인생의 마지막에 대하여 순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취할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성도는 그 어떠한 곤고한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 제목 / ① 고난과 고통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문에서는 새로운 변론자 빌닷의 공박이 소개됩니다. 빌닷은 욥을 비난하는 어투로 말을 시작하여(1-2절), 하나님의 의로움(3-7절)과 교훈과 자연법칙(8-19절)을 예로 들면서 욥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선조들의 지혜'를 근거로 삼아 욥을 비판했습니다(8-19절). 왕골, 갈대, 거미줄, 덩굴식물 등을 예로 들어 세상적인 것에 의존하는 악인들의 허무함과 멸망을 역설했습니다. 욥 역시 그러한 것들에게 의존하였다가 오늘날 그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식의 변론이었습니다. 사실상 빌닷이 역설한 주장은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잘못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빌닷은, 욥을 정죄하는 옛 선조들의 전통을 역설하기 보다 차라리 욥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고 그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는 그 따스한 사랑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과 의미를 알 수 없으므로 헤어날 길 없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죄 없는 자로서 죄인들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였다고 한다면 아마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생활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고난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기도 제목 / ①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들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 이라고 스스로 추켜세웁니다. 과연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해서 본다면 인간은 대단히 위대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은 너무나 초라하고 죄악 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절대적인 통치권을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은 일단 빌달의 논지를 인정합니다(2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본질적으로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쟁변할 수도 없으며(3절),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없고(4절), 하나님과 그의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으며(5-11절), 항거하거나 질문할 수도 없다고(12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감히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거나(14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며 까닭 없이 이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말함(17절)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비난하는 것은 욥의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고전4:4)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욕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논쟁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욱의 친구들은 의롭고 선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형통하며, 악한 사람들은 비참하고 환란을 겪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욱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크게 환란을 당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며 자기는 의인으로서 환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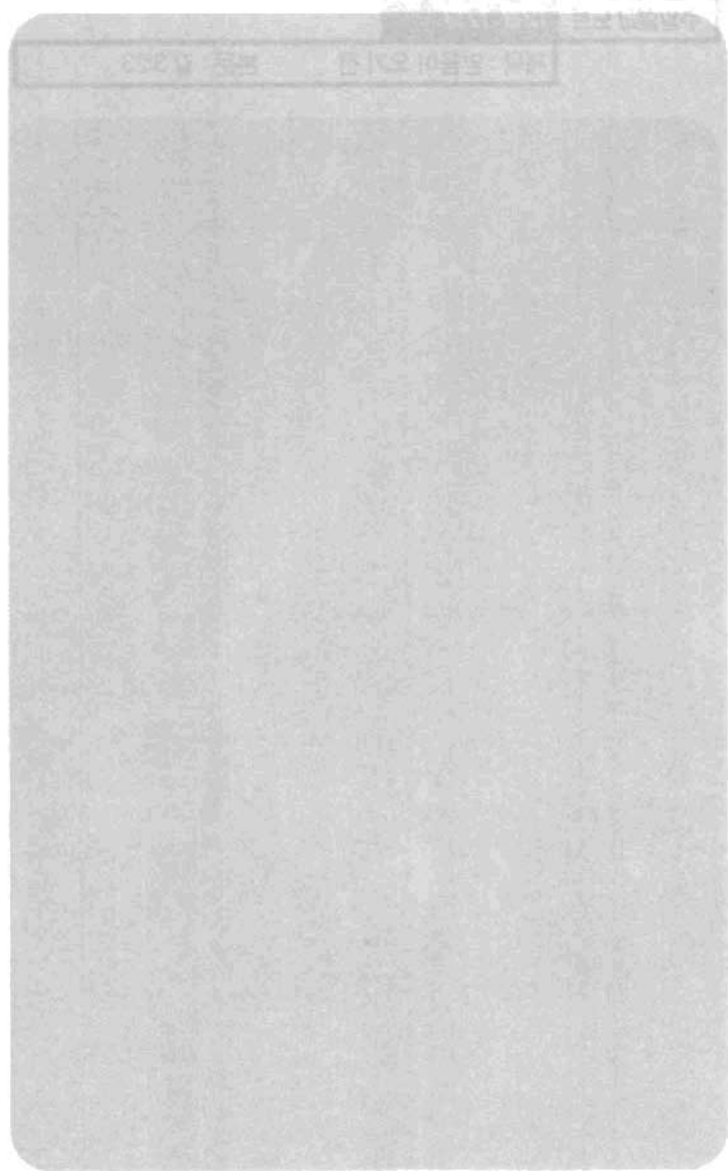
과연 이 세상에는 의인이 고통받으며, 악인이 형통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욱은 오늘 본문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욱은 자기의 과거의 형통한 날들이 속히 지나간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25,26절), 현재의 고통이 두려워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할 수 없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27,28절) 어쩌면 그의 원망의 내용은 시편 73편 등 다른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원망의 언어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동등한 사람이 아니신 것을 불평하며(32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재자나 판결자가 없음을 원망합니다(33절).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협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34절). 욱의 불평이 더욱 큰 잘못인 것은 자기에게 닥쳐진 상황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한 불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간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시73:28).

하나님을 불평해서는 안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선한 생각만 갖게 하옵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는 선하다고 여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 인생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인간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욥도 선악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은 사람과 그 기준이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4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인간의 기준으로 보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것입니다(5-6절). 그러나 어찌 진흙이 토기 장이를 향해서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9절, 사64:8)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자기가 처해 있는 역경을 원망합니다(1-7절). 그리고 나서 그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로서 그 자신을 위로하고 있으며, 그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8-13절).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혹하게 다루심을 다시 원망하면서(14-17절), 그의 탄생과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자리에까지 와서 죽음이 그의 고통을 끝내 주리라는 것으로써 자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18-22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난 자체만을 생각해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생애와 주변 환경을 원망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2절, 롬8: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땀한 상처에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화농에는 여전히 고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아무도 욥에게 기름을 가져다주거나 고약을 발라 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 소발 역시 먼저의 두 친구들처럼 욥을 위로하고 감싸주기보다는 욥의 상처에다 찔증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이 교만을 나타내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몹시 책망을 합니다(14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욥을 징죄하시며 그를 나무라시고(5절) 욥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즉 하나님의 흠 없는 지체와 침범할 수 없는 정의(6절), 측량할 수 없는 완전함(7-9절), 도전할 수 없는 주권과 능력(10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살피심(11,12절)등입니다. 그리고 소발은 욥에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13,14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과 같은 풍족함과 안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시켜주며(15-19절), 그러나 만일 욥이 악한 자면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20절). 요컨대 소발은 욥에게 회개하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정중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4:2). 빌닷은 욥에게 약간 거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8:2). 그러나 소발은 무자비하게 그를 공격합니다(2-3절). 우리는 고통 당하는 이웃을 볼 때 그들을 징죄하기 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징죄하시기 보다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위로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진정한 바나바(권위자, consolation)가 되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와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현지사역이 더욱 알차지고 확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2장과 13장에서는 소발의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그의 친구들과 변론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 향하여 그의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해 그에게 충고해 주실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친구들이 욥에게 대해 말했던 것, 그리고 친구들이 욥의 성품에 대해 내린 판단을 정죄합니다(1-5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의롭고 순전한 자라고 말합니다(4절). 그리고 욥은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한 일들이 있는 것을 예로 듭니다(6절), 이것으로서 악인은 이 세상에서 멸망한다는 친구들의 발언을 반박하고 도전합니다(6-12절). 한편으로 욥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에 대한 묘사는 친구들의 의견과 비슷합니다(13-25절). 즉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13절). 세상의 인간들의 모든 지혜와 모사와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아무 것도 아닌 것과 같다고 역설합니다.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세는 옳바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되며(롬 14:3), 함부로 선생인척 해서도 안됩니다(약3:1). 피차에 비방해서는 안됩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약4:11-12).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비난보다는 사랑이 더욱 위대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아량을 허락해 주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수단)와 허용구 선교사(르완다)가 현지에 잘 적응하며 뿌리를 내리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되었던가? 욥의 경우는 친한 친구들이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첫째, 친구를 의지 할 수 없습니다(1-2절). 친구들이 찾아 왔으나 도움을 주지 못하고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것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과 의논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의논하겠다는 것입니다(3절). 욥은 친구들과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해도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더욱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내로써 처리해야 합니다(13절). 욥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해결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타협하거나 지조 없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신앙의 주관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로써 신앙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갑시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소서. ② 오 경진, 한정은 평신도 단기선교사들(수리남)이 건강하고 원주민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인생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죽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을 사람도 없고 마냥 즐거운 것도 슬픈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괴롭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 가고 마는 것입니다. 첫째, 삶은 정말 허무합니다(1-3절). 인생은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그와 같이 쉬 지나가 버리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평생이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둘째, 인생은 원죄가 있습니다. 욕은 원죄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을 때 깨끗하게 지었으나, 인간이 죄를 지어서 계속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그대로는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중보자 예수가 필요합니다. 셋째, 생사는 하나님이 좌우하십니다(5-6절).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좌우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욕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죽기 전에 편안히 쉬는 날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한 평생을 주께 맡기고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하나님 섬길 마음이 생깁니다.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나를 주관하시사 내 생애를 선하게 인도하소서. ② 권영일, 박수인 평신도 단기선교사(수단)이 원주민 교회 사역, 신학교 및 아랍어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컴퓨터학교 사역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최후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결국은 망합니다(시1:4-6).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살전5:20). 또한 심지어 후손까지 이름이 나지 않습니다(사14:20). 악인은 첫째로, 평생에 고통을 당합니다(20-25절).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벌을 받습니다. 둘째로, 악인의 재산은 영구하지 못합니다(29-30절). 재산은 영구히 자기의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형통할 때도 있는 것이 인간들의 삶의 과정입니다. 아합이 악하게 권력으로 나봇의 포도원까지 빼앗아 재산을 증식시켰으나 그도 비참하게 망하고 자손들까지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악인은 허망한 일을 당합니다(31-35절). 이 세상은 보람있는 일도 많지만 허망한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지 결길로 갈 때 허무함과 고독을 느끼게 되고 아무 낙이 없다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악한 일을 하고 악한 편에 서는 자는 끝이 좋을 리 없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 주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악과 선은 공존합니다. 선에 속해야 합니다.

선에 속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성도가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소서. ②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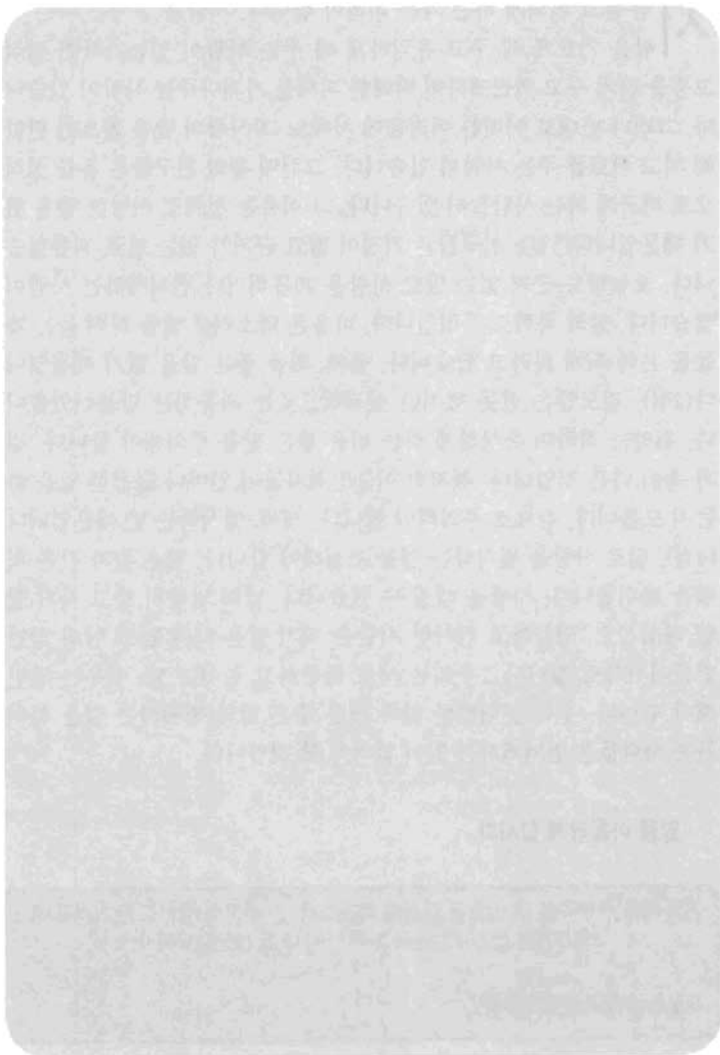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시힘 들고 번뇌케 하는 자는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 주고 유익하게 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심적 고통을 안겨 주고 피곤케하며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편안해 지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심적으로 피곤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허망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3절). 친구들은 거짓이 많고 근거가 없는 말로 괴롭혔습니다. 오늘날도 근거 없는 말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번뇌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의 폭력도 폭력입니다. 바울은 덕스러운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을 은혜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허울 좋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2절). 겉모양은 번듯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괴롭히는 말들이었습니다. 위하는 척하며 속상하게 하는 허울 좋은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철저히 이중인격자들이 얼마나 달콤한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멸시하는 말 때문입니다(4절). 말로 사람을 멸시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칼과 같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남의 말하지 말고 자기 말만 하십시오. 영악하고 간사한 사단은 자기 말은 하지 않고 남의 말만 만들어서라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높이는 말, 세우는 말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허망한 말과 허울 좋은 말과 멸시하는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을 번뇌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말을 아름답게 함시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내 입술을 정결케 하옵소서. ② 추진회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영육이 강건하고 현지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기계도 오래 사용하면 낡아서 쓸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죽어 가는 과정을 순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운이 쇠합니다. 본문 1절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매” 했습니다. 기운이 쇠하여 가고 있다는 것은 죽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에너지가 소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지듯이 생명의 불꽃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죽음의 과정입니다. 늙으면 늙을 수록 기운이 쇠하여 가는 것입니다. 둘째, 날이 다합니다. 본문 1절에 “나의 날이 다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시간을 말합니다. 일년 365일 × 하루 24시간 = 8760 시간입니다. 이것이 1년입니다. 10년은 87600시간입니다. 장수해 100년은 876000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정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정해진 날이 점점 없어집니다. 즉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 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셋째, 무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중에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로 돌아갑니다. 이 땅위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준비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여 복음 위해 사용케 하소서 ② 평신도 선교사들(일본의 유병세, 리비아의 이병석)과 협력선교사들(수단의 강기엽, 이집트의 허요셉)이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어느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전도를 하면서 '너도 죄인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 열심히 안한 것, 부모님 말씀 안들은 것, 친구를 미워한 것 등 다 죄라고 말해 주자 그제서야 '아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죄와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도 죄인일 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마땅히 하나님께 받을 형벌이 있습니다. 첫째, 결국에 그 빛이 꺼진다는 것입니다(5절). 죄인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결국 이땅에서 사라질 운명입니다. 그래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껍데에 자기가 빠지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8절). 둘째, 악인의 멸망은 모두에게 경고를 준다는 것입니다(20절). 인생을 성공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만든 관에서 그의 생애가 마감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빈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을 보여 줍니다. 모두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알고 있는 욥에게도 진실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 밖에 없는 멸망당해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다. 내 속에 살아 있는 예수님의 보혈에만 있는 줄로 믿고 오늘 하루, 감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죄를 없이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죄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은총을 보게 하옵소서.
② LMTC(평신도 선교훈련원)의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평신도선교사들이 양성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 리나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른 나라보다 각별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사할 일들이 한달에도 여러 차례씩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라도 점점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가니까 그런 인사치레가 싫어서 심지어 이민을 가는 사람도 있다고 조간지에 실리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일에는 셈이 있습니다. 축의금을 가져가면 나중에 다시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욥은 이 가축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을 것(26절)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허물이 있더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다”(4절)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죄는 당신들과는 상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욥(19절). 욥은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로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가보면 자신이 죄를 지었기에 여기 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억울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의 티끌을 보기 전에 너의 들보를 보아라” 다른 사람은 심판날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계할 때가 올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만 의지하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의지할 것은 십자가 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겸손히 섬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야기 책들을 보면 나라를 불문하고 대개의 스토리가 권선징악입니다. 결국 악은 망하고 선은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콩쥐팥쥐, 흥부전 등. 사실 성경도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재는 어떠합니까?

이론과 실재가 너무도 다릅니다. 이 땅에서 악인은 너무도 잘 살고 오히려 성도의 삶은 고생고생하는 삶은 아닌가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혹은 조상의 죄때문에 이처럼 고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많은 성도들에게 신정론(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 분인가?)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시인은 2절에서 “거의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은 고생 고생하는데 악인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욥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전개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늘이 그 죄악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27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론은 때로는 실재와 너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약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었지만 너무도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과연 죄값을 받은 것인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판단하지 맙시다. 인생은 꽃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영원을 향해서 살아가시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시73:28).

기도 제목 / ① 고난도 기뻐하게 하옵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 늘날의 청소년들은 너무 외롭습니다. 미국 청소년의 경우 하루에 평균 3시간을 혼자 보내고 한 반에 왕따를 경험한 학생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전원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자살을 경험한 학생은 응답자의 1/4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욥은 너무 외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따돌림은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자신을 손가락질 하는데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1에는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야 나를 붙잡히 여기라” 위로를 받아야 할 붙잡힌 사람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욥은 제발 나를 이렇게 위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2절). 분명히 욥의 고난은 악인의 고난과는 다릅니다. 욥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론과 실체가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7-13절, 23-26절). 그러나 결국 인생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하고 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 욥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의 위로는 헛될 뿐입니다(34절). 사실 사람들의 위로는 거의 말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거하셨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같이 됨’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들은 복받기를 너무 좋아 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복자가 들어간 물건들을 갖기를 좋아 합니다. 수많은 물건들위에 '복' 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저주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독교의 복을 말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복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욥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21절) 지금 욥의 상태는 도무지 복받은 자의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욥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8복을 보면 결코 복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배고픈 자, 찔림을 받는 자, 악한 말을 듣는 자 등. 그러나 복음은 이런 상태가 복받은 자의 상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요?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마5:12)

오늘 본문은 기복 신앙에 도전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28절)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욱 하나님의 뜻과 존재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의 기도는 무엇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에서 내 자아가 죽게 해달라는 기도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 봅시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에 자아가 죽게 하옵소서. ② 남복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마음이 답답한데 말 할 사람이 없다면 이 얼마나 울적한 일입니까?
특히 인생의 어려운 시절에 그렇다면 더욱 외로울 것입니다.

오늘 욥도 심지어 친구들까지, 아니 아내까지도 그를 저주하는 고난의 시기에 찾아갈 분은 하나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만날 수가 없고…뵈올 수가 없구나”(8-9절) 기도할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깨달으리라”(5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의 발단을 읽지 못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은 참 너무하다고 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랐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지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은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롬8:26).

영의 일은 성령이 아십니다. 성도의 모든 일은 성령님의 인도에 맡겨야 됩니다. 자신을 죽이십시오. 성령께서 살리실 것이고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 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나도 성령님과 같이 남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서론

순교의 순간이 가까와 온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서신을 통해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그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자한다.

바울은 문안에 이어 외조모 때부터 이어져 온 신실한 믿음에 대해 감사를 표한 후, 능력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권면한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음의 진리를 타인에게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실천적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라고 말한다. 또한 바울은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등의 세가지 비유를 통해 주의 사역자는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하며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변론이나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역설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은 복음의 구체적인 덕목인 의의 사랑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 결국은 교회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이어 말세에 나타날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진리안에 굳게 서서 잘못된 교리나 도덕적 타락에 대항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성경 말씀의 영감성과 구원의 효용성을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무가 복음 선포임을 밝히면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요청 몇 가지와 바울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함으로써 본서를 끝맺는다.

특히 본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2:3)

라고 부름으로써 사역 자체가 하나의 영적 전투이며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를 구역에서 함께 공부할 성도들도 과를 거듭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되기를 소원한다.

디모데후서의 기본구성

1:1-2	바울의 문안
1:3-7	디모데에 대한 감사의 표현
1:8-18	그리스도의 군사의 소명
2:1-16	그리스도의 군사의 성품
3:1-17	그리스도의 군사를 위한 경고
4:1-5	그리스도의 군사의 직무
4:6-18	그리스도의 군사의 위로
4:19-22	마지막 인사

제 1 과: 디모데후서(1)

그리스도의 군사의 소명

찬 송 / 390장

읽을 말씀 / 1장

공부할 말씀 / 1:8-18

먼저 읽기

고대인들은 'tribulum(트리불룸)'이라 불리는 소도구를 사용하여 곡식의 낱알을 때려 껍질을 벗겼는데, 영어의 'tribulation(트리블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고난은 껍질을 벗기듯 인격을 단련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성경주석은 성도의 고난을 네 개의 학급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급에서는 "나는 환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는 고난을 겪는 것이 달리 어찌할 아무런 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덜거리고 불평을 하면서라도 고난을 체념하고 견디지 않으면 안되는 괴로운 필연, 압제적인 멍에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 학급에서는 학생들이 점차 "나는 참고 견디리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거기서는 고난을 견디는 것이 자진해서 떠맡는 의무요, 무겁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경건한 인내와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떠맡아지는 짐이 됩니다.

세 번째 학급에서는 학습의 취지가 더욱더 분명해 집니다. 그것은 “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고난을 견디는 것은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제일 높은 네 번째 학급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나는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은 영예요, 기쁨의 원인으로까지 간주되는 것입니다. 짐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영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려지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인정되는 표적이 됩니다.

사도바울은 죽음에 처해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확고한 자세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행20:24; 고전4:14; 9:16).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2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남은 5차례의 구역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본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어 목회 사역에 전념할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구원의 근거에 관한 문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군사의 소명에 대한 용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그가 파송한 디모데에게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과연 진실된 것이냐' 라고 의혹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디모데가 낙담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는 디모데에게 소명에 대한 새로운 용기를 갖도록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1. 바울이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 당황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무엇이 라고 말합니까?

① 8절 -

2. 복음을 위한 우리의 소명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① 9절 -

3.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되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음은 무엇때문입니까?

① 12절 -

[13절에서 18절] 군사의 소명에 대한 충성

앞서 거룩한 부르심, 즉 소명을 받아 복음을 위해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고 피력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소명에 뒤따르는 고난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거룩한 부르심에 충성하기 위해 두 가지의 지킬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 사도 바울이 소명을 위해 지키라고 하는 한가지는 무엇입니까?

① 13절 -

5. 지켜야 할 또 다른 한가지는 무엇입니까?

① 14절 -

6. 사도 바울은 본받을 모범으로 오네시보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오네시보로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① 16-17절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제사를 지내는 문제나, 직장에서의 술자리 접대, 주일날 치루는 각종 시험 등, 복음으로 인해 이러한 것들을 기피함으로 당장 눈앞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 주셨는지, 혹은 어떻게 갚아주실 것으로 기대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삶 가운데서, 특히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지만 특별히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3. 디모데가 오네시보로를 통하여 교훈을 얻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축복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2 과: 디모데후서(2)

그리스도의 군사의 성품 I

찬 송 / 389장
읽을 말씀 / 2장
공부할 말씀 / 2:1-13

먼저 읽기

처음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가는 곳이 신병훈련소입니다. 일반적으로 4주에서 6주에 걸친 훈련을 통해 군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는 군대사회의 첫 관문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소위 '사회의 티'를 벗고 군인이 됩니다.

자유롭고 개인적인 생활을 하던 젊은이들에게 조직적이고 절도있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투도 끝을 보다 절도있게 들리는 '다'나 '까'로 끝나도록 해야합니다. 예를들면 “~했습니다, ~하십니까”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어법이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소위 군대에서만 사용되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대화에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구어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데요”, 문장의 끝을 ‘요’라고 마칠 수 없기에 군대식 대화에 익숙하지 않는 신병들에겐 빈번히 사용되는 이 말은 참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말이 “그런데 말입니다”라고 하는 독특한 문장입니다.

조금 우습기는 하지만 이러한 군대만의 훈련들은 수많은 자유분방한, 그리고 통제하기 힘든 젊은이들을 하나된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군복무 기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인정신'이라는 짙막한 단어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어보입니다. 또한 정해진 복무기간을 마치고 개구리 마크라고 전역마크를 달게 되면 그 많은 수고를 견디어낸 것에 상응하는 너무도 큰 기쁨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군인들의 마음가짐과 서로 상통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각 지체가 하나의 큰 조직인 한 몸을 이루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탈영을 하라고 유혹을 하고 변소 뒤로 집합시켜 기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잘 견디어 내면 세상이라는 험난함을 견디어낸 전역마크인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군인이라는 상상을 하면서 각 말씀을 접한다면 면류관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참으로 크게 와 닿을 것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2장은 본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복음 전도자의 자세 및 임무가 특별히 강조되며 취해야 할 성품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도자로서의 자세와 임무는 비단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성도라면 누구나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그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마24:14; 딤후4:2).

[1절에서 2절] 강한 군사

1.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강함을 얻으라고 말합니까?

① 1절 -

[3절에서 4절] 함께하는 군사

2. 사도 바울은 좋은 군사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합니까?

① 3, 4절 -

[5절에서 7절] 고난 받는 군사

3. 경기하는 자는 메달을 따고, 농부는 추수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5절 -

② 6절 -

[8절에서 10절] 인내하는 군사

4. 로마제국은 사도 바울을 사슬에 묶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묶을 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① 9절 -

[11절에서 13절] 소망을 품은 군사

5. 우리가 복음을 인해 고난을 받으나 참으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① 12a절 -

6.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① 12b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십니다.(고전1:26-31, 고후12:5-10). 여러분은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2. 경기에는 규칙이 있듯이, 땀 흘리지 않고는 추수할 수 없듯이 복음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법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예외를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그 한 예로 자녀가 고3이면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어긋난 우리 신앙의 부분을 찾아 바로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3.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고, 함께 참으면 함께 왕 노릇 한다(11-12절)”는 것과 아울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를 부인하는 자를 주님도 부인하신다(12절)”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고 회개한 적은 없습니까?

제 3 과: 디모데후서(3)

그리스도의 군사의 성품 II

찬 송 / 388장
읽을 말씀 / 2장
공부할 말씀 / 2:14-26

먼저 읽기

고시(古詩)중에서 까마귀와 백로가 어울리면 백로가 검어질 것을 우려하는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백로와 놀면 까마귀가 희게 변하지 않을까?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며 검은 어둠을 밝게 만들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재의 삶 속에서 빛이 어둠을 밝힘보다, 어둠이 빛을 가리움에 더 쉬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광을 견학갔다고 합시다. 그날 공교롭게도 흰색의 블라우스를 입고 갔습니다. 친구가 그런 옷차림으로는 견학이 힘들다고 충고를 했지만 견학을 하고 싶어서 가이드에게 “흰옷을 입고 갱 안에 들어갈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가이드는 이렇게 답합니다. “됩니다. 하얀 옷을 입었다고 갱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

니다. 그러나 당신이 갇 안에서 흰옷을 입고 나올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은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더러워진 사람들과 사귀를 원할 때 흰옷을 입었다고 방해하는 것은 없지만, 그후 계속 흰옷을 입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많이 있다는 것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들의 군사들로 하여금 깨끗함을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원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깨끗케하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본문은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으로 영지주의적 이단에 대한 경계와 더불어 선한 일꾼이 될 것을 강조하며 취해야 할 성품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9절] 경건한 군사

1.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무엇이라 평가하며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말합니까?

① 14, 16절 (취할 태도) -

② 17, 18절 (평가) -

2.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까?

① 15절 -

[20절에서 23절] 깨끗한 군사

3. 큰 집에 있는 그릇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어떤 그릇이 집 주인이 쓰

는 그릇입니까?

① 21절 -

4. 그리스도의 군사가 피할 것과 좇을 것은 무엇입니까?

① 22, 23절 -

[24절에서 26절] 종된 군사

5. 타인을 향한 주의 종된 태도는 마땅히 어떠해야 합니까?

① 24, 25절a -

6. 이러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25b, 26절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코람데오(Coram Deo)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신학교에서는 시험을 볼 때, 무 감독 시험을 보면서 칠판에다가 커다랗게 이 말을 적어두곤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우리는 하나님을 장님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람데오(Coram Deo)를 마음에 품을 때 가장 먼저 변화하게 될 우리의 삶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가지씩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론 자신만이 아는 비법을 가지고 있기도 하구요. 우리를 성결케 하는 방법에도 다양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걸으면서 기도한다든지, 포켓성경을 항상 휴대하며 이동간에 묵상한다든지, 차안에서 설교나 찬양Tape를 듣는다든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여러분만의 비법을 서로 공유해봅시기 바랍니다.

3. 2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온유함으로 징계한다'는 말은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빛으로 어둠을 깨끗케 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혹, 온유함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경험을 다른 구역식구들에게 간증하면 좋겠습니다.

제 4 과: 디모데후서(4)

그리스도의 군사를 위한 경고

찬 송 / 391장

읽을 말씀 / 3장

공부할 말씀 / 3:1-4:5

먼저 읽기

불후의 명작 '벤허(Ben Hur)'를 남긴 작가 윌리스는 본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불신자였고 기독교가 필요 없음을 강조하고 공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허구성을 철저하게 밝혀서 기독교를 반박하는 책을 펴내기 위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잘못되고 거짓된 부분을 발견하려고 눈을 번득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 내재해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으며, 결국에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험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에 이르러서 그 앞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감격한 윌리스는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된 후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했던 붓을 꺾어 버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입각하여 만인의 심금을 울리며,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 불후의 명작 '벤허'라는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미국의 성공한 실업가 존 워너메이커는 “나는 일생 동안 투자를 많이 했다. 나는 물건들을 사들여 다시 수천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내가 투자했던 것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열두 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때 나는 단 2달러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고 가르치는데 가장 훌륭한 지침서가 된다는 증거를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그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의 많은 미혹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방법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의 자격 및 임무에 대해 언급한 전장에 이어 본장에서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죄악과 이단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경고하며, 이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세에 나타날 죄악들과 이단 문제, 성도들의 고난과 인내의(고후12:12; 약5:7, 8) 근거 등이 자세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3장 1-13절] 군사의 앞에 놓여진 타락과 배반과 핍박

사도 바울은 범람하는 죄악들과 이단자들의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말세에 나타날 병리적 현상은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고발하는 동시에 종말, 즉 그리스도 재림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살후1:7-10)

1. 말세의 도덕적 타락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1-5절 -

2.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려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12절 -

[3장 14-17절] 군사에게 있어 성경의 확실한 가치

거짓 교사들의 행위와 비참한 말로(사44:25, 계21:8, 22:5)를 지적한 바울은 이제 참된 복음 사역자로서 디모데가 행할 바를 교훈해 줍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삶, 즉 복음을 위한 고난과 구체적인 행적을 실례로(행16:19-40; 골1:24) 들어 닦쳐오는 고난에 담대하게 임할 것과 복음의 진리위에 굳게 설 것을 간곡히 권면합니다. 한편 본문의 성경말씀의 영감성과 권위에 대한 증언은 말씀의 위치와 성격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3.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지혜를 제공할까요?

① 15절 -

4. 성경의 5가지 역할은 무엇입니까?

① 16, 17절 -

[4장 1-5절] 군사의 직무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주위에 모이지만(3-4절). 그러나 참된 교사는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고, 듣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가르칩니다(2절). 그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1절), 목회자와 교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2:24)

5.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① 2절 -

6.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당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① 3, 4절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세대가 더해 갈수록 세상의 악함도 더하여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악함이 사회속에 만연함으로 어찌면 우리는 그 타락에 익숙해져서 그 심각성이나 수위를 바르게 가늠하지 못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하게 되기도 합니다. 10년전의 사회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더 나아진 것과 더 악해진 것들은 무엇입니까?

2. 디모데가 자라난 환경이 중요했던 것처럼, 경건한 사람의 본을 받고,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배우고 교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른 된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각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3.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전하라는 명령을 들었으나 외면하고 하지 못한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의 성공담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서로의 실패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로의 실패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로의 실패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로의 실패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로의 실패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로의 실패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로의 실패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성공담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서로의 실패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로의 실패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성공담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서로의 실패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로의 실패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성공담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서로의 실패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 5 과: 디모데전서(5)

그리스도의 군사의 위로

찬 송 / 402장

읽을 말씀 / 4장

공부할 말씀 / 4:6-18

먼저 읽기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남을 시기하고 원망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가 이웃의 독실한 신자를 찾아가 자기가 꿈에 천국에 가서 놀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잠잠히 듣던 이웃집 신자가 되물었습니다.

“천국에 가 보니 당신의 뜻에 맞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었습니까?”

“예,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왜요?”

“면류관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내 머리에 맞는 게 없어서 껍 유감이었습니다”

면류관이 안 맞는다고 하는 이 예화는 우리에게 가벼운 웃음을 주

지만 그 속에 생각해 보아야 할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 402장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겠다”는 결단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우리의 대장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승리를 확신하며 싸움터에 나가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확신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대사도의 비장한 마음과 고백은 엄숙함과 더불어 몽클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마친 후 요단강을 건너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승리하신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고난 중에 하늘에 둔 소망을 통해 위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3장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리 안에 거할 것을 강조한 바울은 4장에서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최후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믿음과 충성스러운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한바 있다. 이제 이 편지를 마치면서, 그는 이와 같은 충성스러움을 자신에게 보일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충성한 군사에게 보장된 미래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디모데가 소망을 품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신을 본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경기하는 자가 끝까지 인내하고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바울은, 이제 4장에 이르러 편지를 마무리 하며 이처럼 고난을 견디어낸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인내한다면, 역시 그에 합당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1.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① 6절 -

2. 군사로써, 경기하는 자로써 바울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① 7절 -

3. 그리스도의 군사를 위해 예비된 것은 무엇인가?

① 8절 -

[9절에서 18절] 군사를 끝까지 강하게 하는 힘

그가 죽음을 당한다면 상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처한 상황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 그는 디모데에게 그와 함께 계속 선 한 싸움 싸우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옥중에 있는 그에게 올 것을 권합니다. 누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동역자들이 그를 떠났으므로, 그에게 디모데는 더욱 필요했을 것입니다. 4:9-21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며, 디모데에게 직접적인 명령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 바울이 디모데가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느끼게 되는 데, 바울은 말씀의 교사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나고 있으며, 이 때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사람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4. 그리스도의 군사에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서신에 등장하

는 바울의 동역자들은 누구 누구 입니까?

- ① 9절 -
- ② 11절 -
- ③ 19절 -
- ④ 20절 -
- ⑤ 21절 -

5. 그리스도의 군사된 바울과 드로비모가 서신을 쓸 당시 처한 상황은 어떠했는가?

- ① 16절 -
- ② 20절 -

6. 결국 그리스도는 그의 군사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는가?

- ① 17, 18절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전하는 일을 '달음질'로 비유한 바 있습니다. 달리기하는 사람은 뒤돌아보거나 멈추지 않고 꺾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된 우리의 달음질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2. 바울의 생애에는 많은 점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된 구역의 식구들로부터 서로간에 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옆사람으로부터 본받을 점을 나누며 서

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3. 사랑의 빛은 많이 질수록 좋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이만큼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나, 지금 신앙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지 나누어보고 오늘 모임가운데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28 과

선 물

찬 송 / 489장
읽을 말씀 / 엡 2:8-10
외울 말씀 / 엡 1:3

1. 당신이 최근에 받았던 선물 가운데 가장 인상이 남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2. 당신이 최근에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만일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직도 그것을 풀어보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당신은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다음의 말씀들을 읽어보십시오.

고전 2: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엡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엡 1:18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엡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 되

3.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전 2:12, 엡1:18,19)

4.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엡1:3)(요1:12, 벰전 2:8, 고전3:21-23, 수 1:8, 요 15:7)

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은 참으로 많지만 우리는 그 선물들을 풀어보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음으로 영적인 빈곤에 처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신에게 요구되는 변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누십시오.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엡 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 2: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6.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받을 수 있게 하며 그 모든 선물이 담겨 있는 있는 궁극적인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엡 2:8)

다음의 글을 읽어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의 홍수에서 건져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은 동일하게 지금도 당신을 안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지금도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인 것처럼 구원 받은 자의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음을 엡2:10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전에 이미 예비하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매일의 삶을 열어가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열어보는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7. 글을 읽으면서 느끼신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을 돌아보십시오. 선물을 열어보는 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앞에 보임으로 인해 놀리셨습니까? 나누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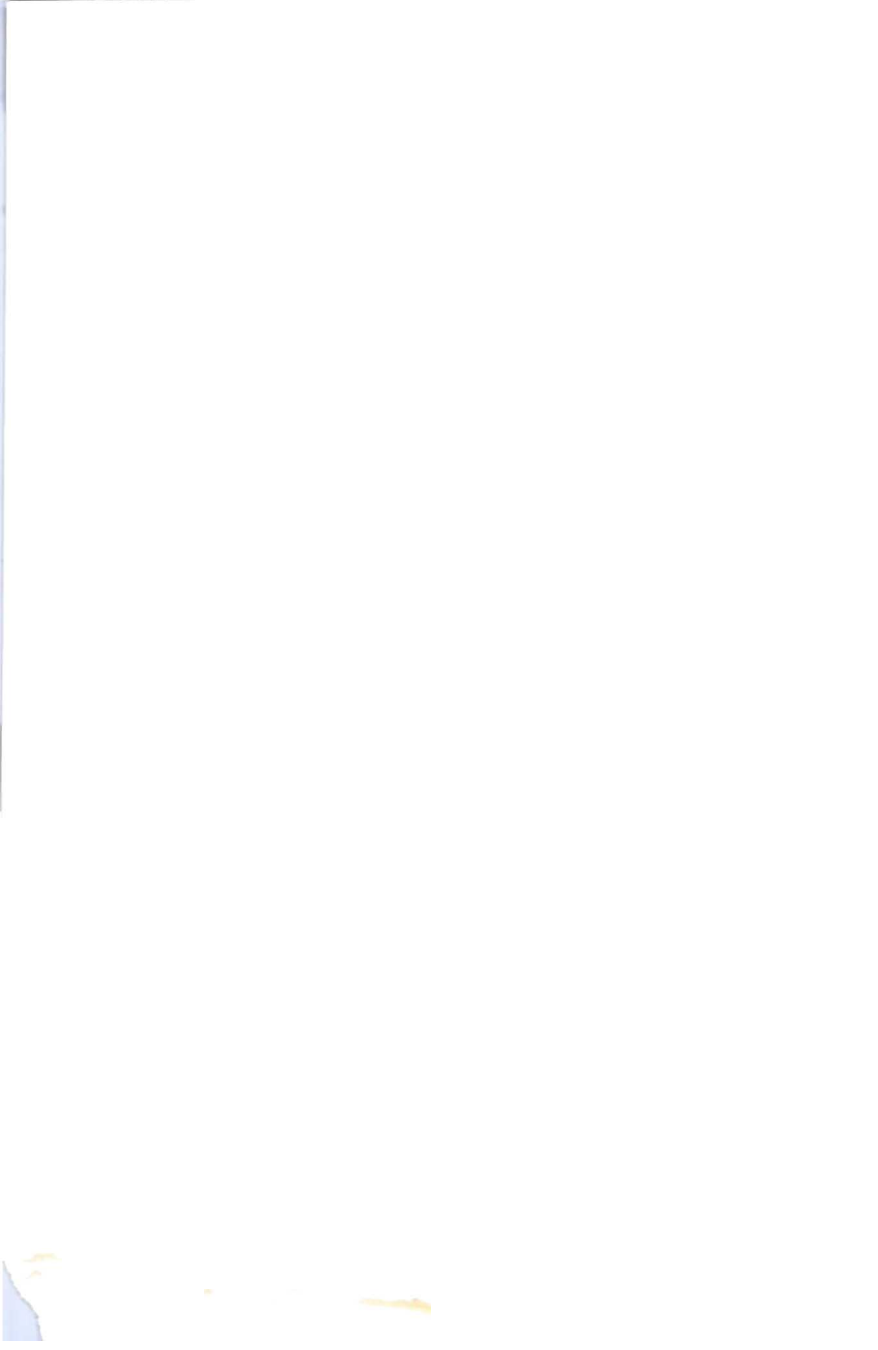
8. 오늘을 말씀 통하여 깨닫고 새롭게 결단한 것과 각자의 기도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MEMO

Blank lined paper for writing a memo.

MEMO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0년 12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임채훈, 이종철, 김영훈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남성구역예배공과 : 이준경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